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22호(96/10/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첫마음

흐노빈은 다바리고 다시
거울나물로 서있는 빛들에게

저마다 지닌
상처같은 곳에
빛은 빛이 숨어있다.

첫마음을 잊지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마음으로

박노해 편
최지필 서

이미 단풍도 들고 곧 낙엽도 지는 계절은 늦가을입니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먹은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박노해의 시를 실었습니다.

* 지난 달에는 사람사랑을 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를 기다리며

윤기원(운영위원, 변호사)

“인권영화제”는 얼핏 보면 “인권”과 “영화제”라는 두 개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결합으로서 우리에게 생소한 느낌을 준다. “영화”하면 우리는 외국 영화에 대하여는 그들의 화려한 의상이나 그들의 추잡한 사생활 등이, 한국영화에 대하여는 벗기기, 가위질, 사전검열 등이 떠오른다. 또한 “영화제” 하면 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칸느 영화제, 한국의 청룡영화제 등이 또는 최근의 부산국제영화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에 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씨네21>, 월간 <키노> 등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1회 인권영화제는 일반인들에게 영화를 통하여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인권운동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신선한 시도로 그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은 인권탄압을 받은 소수의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도 힘이 부쳐 사실상 잠재적 인권피해자(장차 인권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침묵하고 있는자)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일반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고취라는 예방적 차원의 인권운동에는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개최되는 “제1회 인권영화제”는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인권운동의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한국의 인권운동사뿐만 아니라 영화사의 한 장을 장식할 것임에 틀림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사전검열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그 또한 영화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 가능성이 있어 영상매체를 통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당한 정도 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주최측은 헌법재판소의 영화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음에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는 비디오를 통한 상영이기 때문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당국의 태도로 인권영화제에 개최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최측은 누구나 쉽게 이 영화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비용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충당하는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당국의 사전심의방침에 따라 상영장소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뇌리 속에 다시 한번 “인권”하면 떠오르는 단상이 스

치고 지나간다. “인권운동가나 단체들에 대한 공권력의 적대적 감시” “불법연행” “구속” “항의집회” “사무실 임대료 등이 없어 돈을 구하러 주위 사람들을 찾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끌며 거리에 나선 인권운동가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곧 “고통”이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인권”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 “희망”을 의미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그러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더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인권운동가의 땀과 눈물이 필요한 지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에 개최되는 제1회 여건 속에 개최되는 것임에도 미래의 그날을 앞당기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인권”과 “영화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기대한다.

인권영화제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후원회원 조직과 홍보에 앞장 서 주십시오.

인권영화제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과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친 끝에 드디어 이 땅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개막되려 하고 있습니다(첨부하는 홍보물을 참고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디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인권영화제를 한다고 대내외에 공표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전심의의 거부로 상영관을 잡지 못한 채 이화여대에서 열리게 된 이번 영화제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이 영화제는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인력과 재정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안내를 맡을 사람도 필요하지만, 홍보, 전화, 우편발송 등의 작업을 할 사람도 모자랍니다. 누구든지 일손을 함께 나눌 사람이면 좋겠고, 소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운영위원과 자문위원들께서는 모두 1인당 1만원 이상씩 후원금을 납부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을 납부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홍보물을 드리고 영화상영장에서 무료로 영화 해설서를 드리겠습니다. 단, 운영, 자문위원들께서는 영화제 구좌로 입금하지 마시고, 아래의 구좌로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후 꼭 연락주십시오. 또, 첨부하는 홍보물을 옆의 **침지**, 또는 친구분들에게도 돌려 읽게 해서 실질적인 홍보작업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금 입금 은행구좌>

외환은행	011-19-16665-5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822-21-0238-420	예금주 박래군

사 / 업 / 보 / 고

(9월 첫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운영위 계속 공전, 영화제 추진 조직적인 뒷받침 안돼

- 제34차 운영위원회 참여 저조로 무산 -

제34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소집공고되었으나, 운영위원들이 거의 참석치 않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영화제를 준비 막바지 과정에 접어들어서 워낙 바쁜 게 사실이지만, 운영위원회가 계속 참여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영화제 추진경과 보고와 후원인 모집 방안, 5.18 및 과거청산에 대한 입장 정리, <인권하루소식> 독자 확대실천방안 검토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안건들은 현재의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분발이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 연세대 사태 당시 여학생 성추행 문제 국회서 부각시켜

10월 9일 서울 경찰청, 10월 15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이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 문제를 집중 추궁, 뒤늦게 정치권에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추의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문제를 추궁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유선호의원도 마찬가지로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공한 인권피해 조사 자료를 근거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 수사과정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에 결성된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 인권협회의 제단체들과 공동으로 피해조사작업을 실시하기 시작, 약 20여일 동안 조사한 내용을 지난 9월 13일 비공개로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피해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보도자료 자체를 하이텔 01410 참세상에 올렸습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내무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국감에서 재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한총련비대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고소·고발,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컴퓨터 통신 01410망 참세상에 한국인권정보센터 개설

진보적인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참세상에서 지난 9월 7일부터 <인권하루소식>과 인권 정보들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이텔 01410 열린나라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참세상도 하이텔 01410 접속 후 초기 화면에서 한글로 참세상을 치면 접속할 수 있으며, 참세상 ID가 없어도 GUEST로 입력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세상에는 한국인권정보센터라는 방을 만들어 <인권하루소식> 기사 외에도 인권캠페인, 인권단체 소개, 토론마당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자료들은 내부 준비가 되는대로 12월초경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3일 연세대 인권피해 조사결과를 올린 결과 이에 대한 접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다른 통신망에 인권하루소식을 지속

적으로 퍼서 제공하는 이용자도 생겨났습니다. 박범룡씨가 자원봉사자로 결합하면서 통신 공간에 대한 운영이 활결 나아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천리안과 나우누리에도 정보제공자로 참여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으나, 천리안의 경우는 정보유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나우누리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공회대 17명 자원봉사, 연세대 4명 실습중

지난 9월부터 성공회대 학생 17명이 사회봉사 학점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주 3시간씩 10주동안 우리 사무실에 나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며, 이 결과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 중 14명이 자료실에, 3명이 홍보실에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료정리 작업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4명도 1학기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매주 8시간 썩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새 복사기 구입에 청신호

지난 호에 복사기 광고가 나간 다음 곧장 영남대 박홍규 교수, 방송대 곽노현 교수(운영위원)가 150만원을 마련해 주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위원이 100만원을 부쳐 주었고, 그외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등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운영위원)께서는 전 사무실에서 쓰던 복사기를 사무실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복사기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윤변호사가 준 복사기는 막자료용으로 활용하고, 새 복사기를 형편에 맞게 구입해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는 제록스에서 15일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팩스까지 되는 신종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구입 문제는 다음 호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창간 3주년(9월 7일)일 맞아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기획을 마련하여 격주로 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위의 평이 좋습니다. 알려진 활동가보다는 성실히 일하면서도 인권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이면 소개할 만하다 싶은 사람은 홍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는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은 형편상 100부만 제작한 관계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합본 6호와 아울러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대사업 =====

▲ 이화여대 개방대학 인권주제 강좌를 마쳤습니다. 총 4강의로 구성된 강좌에 1강(9월11일, 서대표), 3강(2일, 사무국장)이 참가하였고, 이후 공동 강의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울대, 이화여대, 한신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인권운동대학생연대(대표 박신혜)가 일상 활동으로 추진중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방대학은 이번 평가를 교훈 삼아 매년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생인권연대를 올 겨울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사회연수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성폭력근절 시민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습니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약 3백명이 참가했고, 명동성당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 유가협, 추모사업회연대회의 등이 주관한 제7회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가 지난 9월 2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약 8백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유가협 박정기 회장 님 등 회원들은 지난 9월 22일 새벽 탈취되어 행방이 묘연한 송광영 열사 추모비 원상회복을 위한 농성을 경원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1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문제에 대해 불교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관스님은 안기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캐나다 동포 강병연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민변의 제안으로 8월부터 갖기 시작한 5.18 및 과거청산 관련 간담회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민변, 전국연합, 민교협, 광주 5.18공대위 등 1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5.18 항소심 재판에 대한 모니터와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에는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정희 총무가 동티모르 모임 준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용환 변호사 등 동티모르에 관심있는 개별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모임은 오는 11월 초순경 정식 결성될 예정입니다. 이 동티모르 준비위에서는 소식지를 한 차례 냈는데, 이번에 동티모르의 벨로 주교와 저항평의회의 호세 라모타씨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돼 매우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임에 참가하고 싶은 분은 김정희 총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정 =====

▲ 류은숙 교육실장이 9월 4일 귀국, 곧장 영화제 준비팀에 결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류 교육실장은 영국에 있는 동안 조금 살이 빠졌는데, 영화제 일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통에 다시 살이 쪼갤 것 같다고 엄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면서도 활기있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대 출신인 김의연(28)씨가 추석 직후부터 자원봉사자로 매일 나와 업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서준식 대표와 성동구치소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경실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배우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쓰면서 사무실의 각종 업무를 나눠 하고 있습니다.

▲ 안미혜 국제연대 담당자가 지난 10월초 3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는 여권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10월 23일경 귀국합니다.

▲ 지난 33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하루소식>에서 근무하던 엄주현씨를 10월1일부로 정보자료실로 부서 이동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하루소식>에는 김수경 편집장과 이창조 기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사태 인권유린에 대한 성명

우리는 8월 12일부터 최근까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문민시대 최악의 암흑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단지 한총련 소속 5,889명 연행, 456명 구속, 440명 기소라는 사상 최대의 통계 때문만은 아니다. 이 통계수치에 얼룩진 비참한 인권유린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진압 전부터 식량은 물론이고 의약품과 여성용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의 발걸음마저 가로막는 등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였다. 최대의 극한 상황인 전쟁시에도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천륜마저 짓밟은 상태에서 연세대 학생들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졌다. 경찰봉에 짓이겨지고, 언론에 의해 철저히 감추어졌던 진압 당시의 상황과 조사과정의 진실이 피해학생들의 호소로 하나씩 밝혀지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경찰의 구타에 의한 부상은 다반사였으며,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경찰력의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하였다. 종합관에서 앞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내려오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당한 것으로 점차 확인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추행 외에도 여학생들에 대해 '사수대 위안부-정신대-기쁨조'라는 모멸적이고, 도착적인 용어를 써가며 극도의 수치심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여학생들에 대해 '소환하여 재수사하겠다'느니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경찰의 작태에 이르면 주소불명의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된다. 3일 동안 굶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발로 차기도 하였고, 폭력에 항의하는 남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피투성이가 되게 하였다. 일본군 등 외국 침략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 울타리, 한형제의 품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대 사태를 전후한 이와같은 인권유린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행위로서 민족사의 수치이다. 위법한 것에 대해 정부는 그를 계도하고 처벌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인권을 탄압할 권한을 우리 국민은 전혀 준 바가 없다. 이는 독재이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독재세력과 야합한 허울만의 문민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실시하라.
2.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3. 정부는 공식사과하고 박일룡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진압전경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
5. 언론은 참혹한 인권말살의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중단하라.

1996년 9월 13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계열대표자회의, 기장여교역자협의회, 동학민족통일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울연합, 경기남부연합, 성남연합, 한노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4월혁명연구소,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서울민주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교무단, 연세대민주동문회, 인권운동사랑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대협동우회, 참교육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맞이7천만겨레모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자문위원 여러분.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그동안 전쟁터를 방북케 했던 사무실을 갈무리 하느라 8명의 활동가들이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갈 제가 처음으로 귀국하고 어학코스를 다니던 1967년 무렵(저에게도 꿈같은 19살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석'의 의미도 잘 모르는 채 시고기랑 4촌, 6촌 동생들의 옷가지장을 사들고 충청남도에 흩어진 친척들을 열심히 찾아 다닌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몹시 힘든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낯생 처음으로 우리나라 농촌풍물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이었으며, 우리말도 못하던 제가 돼지 같이 생긴 시골 푸줏간 주인과 "비계가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내장을 많이 섞어 넣느냐"고 펄사적으로 실랑이를 벌인 일을 기억해내면서 혼자서 웃어버리곤 합니다. 탈탈거리며 거북걸음을 걷는 '직행'버스,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시골길에 뭉게구름 처럼 피어나는 먼지, 살인적인 망원버스 속에서 문을 바싹 붙여온 시골 아낙의 현기증 나는 땀냄새, 장터의 오죠티내, 굽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쓸쓸히 누워 있던 할아버지 산소, 그리고 커다란 보름달 아래 제가 사다준 예쁜 옷을 입고 뛰 어다니던 요정 같은 '지지배' 동생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소중한 간직하고 있는 추석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제가 '까막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선량한 시골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며 놀랐겠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그 따뜻했던 어른들은 하나 둘 돌아가시고, 예뻐던 '지지배' 동생들은 도시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청도에 남아 있는 '부어 서씨[徐氏]'들의 기억 속에서 서준식은 여전히 그 끈적했던 '보안대'와 항상 함께 있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것이 분명합니다. 감옥 속에서 라거르 라거르 흘러가버린 저의 젊음과 함께 어느새 제가 갈 수 있는 추석의 시골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아득바득 죽도록 일하다가 명절 연휴만 되면 영낙없이 앓아 누워버리는 저의 습성 대로, 이번 추석도 갈 곳 없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집구석에서 마음 턱 놓고 앓아 누우렵니다. 괴로운 병상에서 깡뻑 깡뻑 잠이 들다가 꿈 속에서 서거거리는 대나무에 둘러싸인 일본 부모님의 아늑한 무덤에라도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편지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배달되겠지요. 좀 더 일찍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감이 정신없이 쏟아져 '사랑사랑' 이번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0월달에는 일찌감چه 만들어 사랑방의 유모조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8호 VI'이 나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거의 우리 인권운동사랑방의 힘만으로 준비하는 '제1회 인권영화제', 힘들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을 느낍니다. 한자리에 모이게 될 약 20편의 인권영화들의 행진! 분명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이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에는 유준 대학생 실습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글거립니다. 인구밀도가 부족 높아져 여기저기 다니기 쪼차 짜증이 나는 사무실이지만 우리는 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권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예감합니다. 열심히 해박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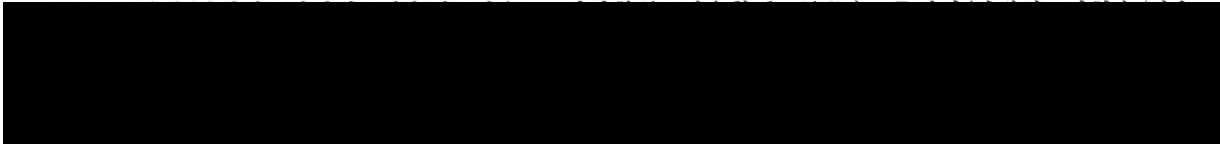
96-08분기 재정보고('96 08/16-09/15)

전기이월 -241,406원

수 입		지 출	
회 비	2,616,700	활 동 비	3,440,000
구 독 료	2,282,800	사 업 비	672,600
후 원 금	300,000	발 송 비	143,140
사업 수익	130,500	사무 비품	494,990
기타수익	923,680	사무실유지	564,031
		자료구입	8,000
		식대(야근)	342,550
		전화요금	722,421
		사무기기	30,000
		복 사 비	184,870
		기 타	691,700
계	6,253,680원	계	7,294,302원

최종결산: -1,282,028원

<96년 8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96-09분기 재정보고('96 09/16-10/15)

전기이월 -1,282,028원

수 입		지 출	
회 비	2,531,200	활 동 비	4,470,000
구 독 료	2,705,120	사 업 비	577,490
후 원 금	150,000	발 송 비	314,660
사업 수익	507,400	사무 비품	211,520
은행이자	10,918	사무실유지	644,238
기타수익	20,000	자료구입	143,200
		식대(야근)	384,200
		전화요금	874,606
		사무기기	262,000
		복 사 비	92,900
		기 타	33,300
계	5,924,638원	계	8,008,114원

최종결산: -3,365,504원

<96년 9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